

第299回國會
(臨時會)

國際競技大會開催및誘致 支援特別委員會會議錄

第 9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1年4月5日(火)

場 所 第3會議場(245號)

議事日程

1.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
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1.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 · 전해숙 · 손숙미 · 유정현 · 김호연 · 김성태 · 홍영표 · 임해규 · 황영철 · 장윤석 · 이영애 · 최경희 · 이인기 · 고흥길 · 권영진 의원 발의) 1
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 · 김정권 · 나경원 · 이한성 · 주광덕 · 박은수 · 김혜성 · 권영진 · 장윤석 · 안홍준 · 이화수 · 박민식 · 홍일표 · 이명규 · 이운성 · 신성범 · 이종구 · 김재경 · 정태근 · 고흥길 · 홍사덕 · 손숙미 · 정옥임 · 이군현 · 김무성 · 강명순 · 윤진식 · 김성태 · 안형환 · 배은희 · 이진복 · 조원진 · 정해걸 · 강석호 · 김용태 · 조전혁 · 권성동 · 이두아 · 김성희 · 황진하 · 이종혁 · 이상권 · 조진형 · 이병석 · 박진 · 허천 · 강승규 · 현기환 · 진성호 · 이철우 · 김태환 · 백성운 · 조경태 · 김성동 · 서상기 · 김선동 · 유성엽 · 황우여 · 이해봉 의원 발의) 2

(14시14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9차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87회 임시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나라당 5인, 민주당 3인, 비교섭단체 중 1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간사 협의 끝에 한나라당의 이명규 위원 · 권성동 위원 · 나경원 위원 · 이한성 위원 · 장윤석 위원, 민주당의 신학용 위원 · 김영진 위원 · 노영민 위원,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위원으로 구성하고, 한나라당의 이명규 위원을 소위원장으로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법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해서 영국에서 열리는 2011 스포츠어코드라는 회의에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박선규 제2차관이 대신 참석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 · 전해숙 · 손숙미 · 유정현 · 김호연 · 김성태 · 홍영표 · 임해규 · 황영철 · 장윤석 · 이영애 · 최경희 · 이인기 · 고흥길 · 권영진 의원 발의)

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김정권·나경원·이한성·주광덕·박은수·김혜성·권영진·장윤석·안홍준·이화수·박민식·홍일표·이명규·이운성·신성범·이종구·김재경·정태근·고홍길·홍사덕·손숙미·정옥임·이군현·김무성·강명순·윤진식·김성태·안형환·배은희·이진복·조원진·정해걸·강석호·김용태·조진혁·권성동·이두아·김성희·황진하·이종혁·이상권·조진형·이병석·박진·허천·강승규·현기환·진성호·이철우·김태환·백성운·조경태·김성동·서상기·김선동·유성엽·황우여·이해봉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까요, 오셨으니까? 말씀하시지요, 오셨으니까.

나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이 2013년 세계 스페셜 올림픽대회의 개최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평창의 스페셜 올림픽 유치를 통해 지적장애인들의 체육활동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화합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국격을 상승시키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스페셜 올림픽의 유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현재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결성되었고 ‘Together we can’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회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105개국 2만여 명의 선수와 대회 관계자가 모이는 전 세계 지적장애인들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동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스페셜 올림픽대회는 영리 목적의 올림픽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대회를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영리 목적의 대회가 아닌 만큼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지원이 어떤 올림픽보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1968년에 케네디 대통령의 누이인 유니스 시라이버(Eunice Shriver) 여사가 창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는 IOC로부터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유일한 올림픽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석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입니다. 지금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1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입만 움직일 수 있었지 전신이 마비된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체육이 있었기에 인생을 여기까지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체육은 88년도 올림픽을 기회로 발전을 시작했고 이제 인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패럴 올림픽이 함

께 개최되고 아시안게임과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함께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인천에서는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에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함께 하도록 스스로가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소극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전 장애인들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2년여가 남았는데 2년치 예산도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법안을 통과시켜서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2년 가지고는 대회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에서는 OCA 관계 때문에 좀더 법안을 연기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인천의 입장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장애인 체육이 정말 발전할 수 있고, 인천 아시안게임만 개최되고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개최 안 된다면 한국의 수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이 엄청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하고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위 선양과 장애인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하고, 2014년 인천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장애인들의 한을 풀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윤석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환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입니다.

제정안은 2013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 스페셜 올림픽대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동 대회가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대회 종료 후 조직위원회의 결산보고나 해산 후 잔여재산 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법률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1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입법례를 보면 해당 국제대회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유치경쟁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대회 유치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타당성 조사 등 절차와,

둘째, 국제대회의 위상이나 규모 등에 따른 법적·제도적 지원조건 및 내용,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신청 시 약속한 사항이나 중앙정부의 지원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의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한 일반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법률안들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님 나오셨으니까 그동안의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것, 그것 좀 몇 가지 당부 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장애인 각종 경기대회의 중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올해 5월 8일 날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공영방송인 KBS에서, 20회째를 맞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중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는 이게 중단이 되었거든요. 우리 차관께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장애인휠체어대회가 중계가 됴므로써 어떤, 말하자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위원님들 모두가 그러하시고,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지향하듯이 공정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 더불어서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못지않게 스포츠를 통해서 활력을 보여 주고 활동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중계가 된다면 전 국민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들도 생활 속에서 익힐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계방송과 관련해서 제게도 자문을 구해왔고 제게도 좀 협조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KBS에서 좀 협조가 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기에 저는 또 하나 당부를 드린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할 수 있는 선으로 KBS의 중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중계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시청하는 국민들이 장애인들의 활동을 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같

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차관께서 본 위원이 질문했었던 의도와 너무 부합되게 잘 내용을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방법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KBS에서 즉 중계를 해 왔었던 것입니다. 이게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해 왔었던 것인데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 비장애인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장애인들 스스로 그런 국제대회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그게 중계되는 것을 보면서 일반 장애인들도 어떤 장애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체육활동에 많은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지금 오늘 제기한 이런 2013년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나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해서 개·폐회식 같은 것도 어쨌든 이런 장애인과 관련된 큰 국제행사에 대해서 유사한 일반 행사가 있을 때 생중계된다고 한다면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정부가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또 말이 나왔으니까 또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013년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산 중에 후원금이 거의 60%, 180억을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재주로 이렇게 180억씩을 1개 대회의 후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달, 대충 예산을 하고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그냥 일단 서류상으로 이렇게 짜 놓은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서류상으로 짜 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제까지 진행되는 다른 세계국제경기대회의 정부 지원 비율과 민간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4 대 6으로 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300억으로 지금 상정돼 있기 때문에 300억의 4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이정현 위원 그 4 대 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 있는 기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그것이 지금 이제까지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국제경기대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데……

○**이정현 위원** 그런데 차관님,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반 국제대회하고 장애인대회하고 그 관심이나 또는 중계료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같습니까? 장애인대회하고 이런 일반 대회하고 국제경기대회 다 비율이 적용될 때 같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지금 그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런 물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의 경기는 이른바 비장애인들의 경기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훨씬 더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책임도 맡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있고,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가 다른 대회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하고 지원 규모, 그리고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을 좀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 학교 생활체육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 이렇게 엘리트 체육인, 장애인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대회도 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일반 장애인들이 학교에서나 평상시에 생활체육에서,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기구나 도구의 이용 없이도 체력 단련을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이야말로 가장 많은 시설을 필요로 하고 특별한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야말로 더 이런 생활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저도 문방위에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매년 예산을 늘리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교육체계라든가 프로그램이나 인력 배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냥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이 정도의 수준과 국제 수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들의 평상시의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부분에 대한 더 많은, 거의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지원이나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이정현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필요한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의 예산 증가 속도를 뛰어넘는 훨씬 더 파격적인 방안으로 장애인 문제, 특히 소외되어 있는 계층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장애인체육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자리에 윤석용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윤 의원님과도 이 문제를 끊임없이 상의하면서 이 문제를 정부가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가 이 국제경기특위까지 국회에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국제경기들을 유치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유치가 되어서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 유치할 당시에 내걸었던 조건하고—아까도 거기에 나왔습니다—실제로 유치된 이후에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여튼 굉장히 예산에 늘 문제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국제경기지원, 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 경기 다 합해서 국제경기 지원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확실한 원칙을 정해 가지고 제대로 하자고 하는 것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국회에서 우리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함께 노력이 되어서 상당히 통제된, 그러면서도 성공적으로 국제대회가 늘 치러질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짚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도 아까 주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일반 입법이 되어 가지고 전체 대회를

관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별입법이 되다 보니 행정 낭비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좀 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위원님들 질의 도중입니다마는 의결사항이 있어서 잠시 의결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은 제정 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사 위원과의 협의 결과,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별 이의가 없이 이 법안에 대한 생각이 같으시기 때문에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북 문경·예천 출신 한나라당 이한성 위원입니다.

방금 황우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홀하기 쉬운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지원 제정 법안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께서도 이렇게 장애인 분야, 지적 발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또 제정 법안을 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윤석용 의원님께서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제경기유치지원특위에 와 있는 이유가 우리 문경의 세계군인체육대회, 이것이 현안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에 와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이에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개최된 세계군인체육대회사무국 CISM의 이사회에서 문경 대회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3월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결과 매우 시설이 훌륭하고 또 시민들의 열기가 높아서 만장일치로 우선 유치하기로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는 5월 10일께 서울에서 개최되는 CISM 연차총회에서 승인을 하면, 승인을 하고 우리나라 정부와 CISM 간의 협약서가 체결되면 그것으로 이제 최종결정이 되는 것이고, 바로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대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각에서는 평창대회에 좀 지장이 되지 않을까, 또 같은 해에 열리는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과 겹치는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이 위원회의 동료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대회 일정 관계는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간절합니다. 그 대회가 우리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로 인해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할 용의가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협조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대회가 다 같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말고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도 필요한 시설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세계대회가 국가 단위가 아니고 도시별로 지금 개최를 하는 형식을 대체로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초기 단계 유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유치 이후에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광주 U-대회와 세계군인체육대회 간의 일자 그리고 거기 심판진 배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있어서요, 정부에서 국방부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광주 U-대회 조직위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만하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한성 위원** 그것은 충돌할 문제는 아닌데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가지고, 우리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지장을 받을까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이사국회의에서 결정을 해 놓은 만큼, 그래도 일촉즉발, 정말 무슨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되겠다, 같이 또 양립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동료 위원님의 걱정애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2015년 대회를 위해서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도 한 여섯 군데에서 분산해서 실시됩니다마는, 그 사이에 혹시 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또 고장이 발생하거나 하면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요.

이제는 세계 스포츠경기 대회를 스포츠만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포츠경기가 열리는 곳마다 관광과 문화를 같이 엮어서, 관광·문화를 통해서 그 지역 전반을 세계 속에 알리는 대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체제의 시스템을 갖춰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의 세계군인체육선수권대회 때도요, 필요한 부분에 문화행사, 예술행사까지 같이 연결 지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차관님 마침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단순히 스포츠마케팅을 떠나서 문화관광마케팅도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경북 지역에 3대 문화권 사업을 통해서 많은 관광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상생벨트 또 문경의 불교문화, '옛길'인가, 이름에 불교문화가 들어갔지, 기독교도 조금 신경을 씁니다마는, 저는 일명 '고려촌'으로 고려시대의 민속거리 이런 것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사업을 잡아 주셔서 가지고 그 점을 감사드리고, 그 사업 간에, 옆에 계신 장윤석 위원님 지역구에도 부석사라든지 많은 문화관광지역이 있으니까 같이 구축해서 벨트화 된다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을 드리면서 지원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이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닙니다.

이한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특위 때 정병국 장관께서 참석을 하셨을 때 공교롭게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와 문경에서 개최될 세계군인올림픽체육대회, 그 개최 일정기간이 좀 근접해 가지고 FISU로부터 경고장이 정식으로 도착을 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의 정병국 장관님 그리고 국방부장관께서 정부 부처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하시고, 또 현직 의원이신 이한성 의원께서 시장님과도 잘 협력을 해 주시고 해서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없이 잘 조정되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장은 FISU에, 오늘 이후에 이것이 공식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일정이 조정되고 FISU로부터 우리가 경고 받은 내용이 해소됐다는 그런 공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성 위원님 말씀한 대로 거의 비슷한, 한 2~3개월 차이에 영호남에서 이런 국제 대회가 있으니까, 그쪽 대회는 우리 광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또 광주 대회에 오셔서 영호남의 화합의 큰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倫碩 委員** 발의하신 의원이 질의를……

○**나경원 위원** 법안이 아니라 다른 것 추가해서 한 말씀만……

아까 장애인스포츠에 대해서, 학교에서 스포츠 교육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스포츠강사 제도를 지금 문화부

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스포츠강사에, 지금 실질적으로 스포츠강사가 전부 다 정상 체육인들을 위한 강사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체육교사들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스포츠강사를 파견하는 것에, 다만 정말 10분의 1이라든지, 학교에 장애인 학생들이 얼마나 비율로 있는지를 보셔서 적어도 몇 %는, 스포츠강사의 몇 %는 특수체육을 하는 강사로 파견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특수체육강사는 순회강사식으로 여러 학교를 같이 돌리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셨길래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님……

○신학용 위원 장운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산 아시안게임 때도 이 장애인 법안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장애인 법안 이요?

○신학용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그때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학용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하려고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스페셜이요?

○신학용 위원 아니, 아시안게임에 그 체육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당연히 할 텐데, 아까 보니까 윤석용 의원님께서 “인천에서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자꾸 뭐 한다.”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다른 때는 안 넣고 인천 아시안게임 때만 넣으려고 하니 잘못하면 수치스러운 일이 될까 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까지 다 그렇게 해 왔는데 왜 인천만 부득이 이걸 넣자는 것인가요?

그것을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윤석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인천

에 대해서 서운함이라기보다는 지금 OCA와……

○신학용 위원 아니, 지금 법안을…… 이때까지 한 전례가 없고, 하면 그 이후에 1주일이면 1주일, 한 달이면 한 달 후에 당연히 동계올림픽이고 아시안게임이고 다 하는데 왜 이 법안을 꼭 이렇게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만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그것이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OCA가 규정을 바꿨습니다. 바뀌어서 아시아경기가 열린 전후 90일 동안은 같은 도시에서 어떤 대회도 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는……

○신학용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못 하게 했다면 논리적으로 그걸 좀 당겨 달라고 하면 될 텐데, 이 법을 넣으면 도움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그러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새로운, 들어가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다음 대회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완전히 인천 아시안경기대회하고는 별도의 대회로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OCA 자체가 지금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규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규정은 인천, 주관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룰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 문제 때문에 3월 달에,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선은 당장 OCA와 APC의 문제,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천 아시안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OCA 간에 현안들이 몇 가지가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지금 잘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보니 인천 아시안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OCA와의 관계 때문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푸쉬(push)하지 못하도록, 그 얘기가 적극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짐작합니다.

○신학용 위원 그것 때문에 이걸 넣는다고 그러

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장애인아시아게임은 2주 후에 열린다’는 문구도 여기에다가 집어넣지요, 차라리.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아까, 지금 가서서……

인천에서 왜 노력을 안 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 왜 안 해요? 당연히 인천에도 장애인체육위원회가 다 따로 있고,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지금 제안설명에서 ‘인천에서 신경을 안 쓰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제출한다’는 식의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에 대한 어느 정도 폼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법이 없으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집어넣은 것은 그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윤석용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 광주 아시아경기대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냐 하면 OCA가 그런 물을 들어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에서 열 수 없다고 OCA가 강력하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 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를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까지 사실은 제기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인천에서 기를 받지 않고 KPC에서, 윤석용 의장께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름으로 기를 받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인천 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문제는 OCA하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하고 현안들이 몇 가지가 남아 있으니 그것이 풀릴 때까지만 일단 장애인경기대회는 다음 단계로 밀어 놓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풀린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진전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이후로 지금 인천에서도 조직위에 준비위원회에다가 인천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윤석용 의원님께서, 제 짐작컨대 그런 것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속도가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

게 짐작을 합니다.

○신학용 위원 그래서 지금 법안 낸 것이 인천 으로서는 굉장히 수모적인, 인천 도시에 대한 수모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원칙대로 이 법에 넣으려고 하면 2013년 장애인아시아게임을 다시 또 유치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치는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물론 유치 됐지요.

○신학용 위원 그것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신학용 위원 그렇지요, 그간의 관계를 왜 여기에다가 집어넣느냐 이것이지요, 아시안게임과.

따로 만듭시다, 아시안게임 해 가지고. 그게 낫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오게 되어 있고, 우리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법만 집어넣어 버리니까 인천이 이걸 안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장애인 분들한테 잘못 와전될까 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그건 윤석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신학용 위원 APC와도 지금 현재 계약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APC에서는 결정을 해서요, APC에서 인천을 개최지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APC와 대한민국 KPC 사이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APC의 결정을 OCA가 동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규모로 보면 OCA는 아시아경기대회, 스포츠경기 전체를 관장하는 곳이고, APC는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OCA에서 반대를 세계 한다면 APC가 밀어붙일 힘은 없는 겁니다.

○신학용 위원 독립적인 것 아니에요? 일단은 독립적인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독립은 맞습니다.

○신학용 위원 독립적이니까……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마치 우리가 노력 안 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그런 형식이 되니

까, 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문제점이다, 물론 장애인단체에서 원한다면 해 드려야지요. 그렇지만 제안 이유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싶어서 제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천지원본부에서 나왔습니까?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예.

○**신학용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장애인협회에서 화나게끔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가만 놔둬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면화시키느냐 이거지요.

답변해 보세요.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우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 장애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내 전국체전도 그렇고 또 올림픽도 그렇고 항상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장애인 경기가 당연히 후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의해서 2009년도 5월 달에 APC에 유치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해 2009년 9월에 후보도시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준비를 10월 달에 하고 있었는데 OCA에서 세 번 공문을 보내면서 대회 직전·직후에는, 2주 전후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세 번 경고를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계약 체결을 좀 늦추자, 지금 OCA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좀 늦추는 걸로 해서 현재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OCA에서는 그런 레터(letter)로써 경고하는 것 외에 더 문서화하기 위해서 작년 광저우아시안게임 때 11월 13일 날 OCA 현장을 바꿔 가지고 45개국의 동의를 받아서 대회 전후 90일간은 못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APC하고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광저우장애인대회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후보도시로서 대회기를 인수했어야 됐지

만 OCA하고 어떤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대회기를 인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까 윤석용 국회의원님하고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대회기를 받을 아무 자격이 없다. 비록 후보지로 유치해서 선정은 됐지만 협약 체결도 안 된 정식 후보도시가 아닌 데서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대회기를 못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너희가 못 받으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표인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받겠다.” 해서 기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다소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나 마음이 상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는 그러한 부분에 관계없이 최근에도 실무자들을 세 번 광저우에 보내 가지고 거기 조직위원회가 해체되기 전에 모든 자료를 다 받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대회 준비하기 힘들다 해서 지금 자료는 다 받아왔습니다.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아시안게임 자체도 OCA하고의 협상과정에 많은 난항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는 장애인대회를 저희가 만약에 들고 나가면 모든 협상에서 감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OCA 측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희 인천시 자체적으로 OCA를 설득해서 ‘이 장애인대회를 2주 후에 합시다’라고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지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약자 입장인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극구 반대하는 장애인대회를 저희가 ‘2주 이내에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기에는 저희 혼자 힘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PC, 아시아 장애인 모든 회원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OCA하고 압력을 넣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는 게 저희 인천시 입장입니다.

저희 인천시한테 모든 짐을 다 주고 ‘너희가 해결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 힘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난번 장애인총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힘은 인천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전체 회원국이 다 힘을 합쳐서 OCA를 설득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장애인대회를 치르는 데……”

만약에 2주 후에 못 치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바로 11월 달 돼 가지고 겨울이 돼

서,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부산장애인대회 때 추워 가지고 상당히 불만들이 많았는데 겨울이라 대회를 못 치르면 그다음 해 따뜻한 봄날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선수촌이 문제가 됩니다. 이미 아시안게임이 10월 달에 다 끝나고 한 6개월 공백기간을 뒀다가 장애인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때 동안에 아파트 분양한 것을 숙소로 썼는데 그것을 계속 그때까지 미루기에는 어렵다는 거지요.

○**신학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관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입법화시키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인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APC와 OCA가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APC와 OCA가 풀어야 하는데 APC의 힘이 좀 부족해서……

저도 지난해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에 가서 IPC 위원장도 만나고 APC 위원들도 만나고, 그래서 우선은 세계 장애인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모든 인사들이 힘을 합해서 일단 OCA가 뒤늦게 정해 놓은 물을 조금 변경시켜서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 같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계약서가 완전히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를 받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지막 계약만 되지 않았다 뿐이지 인천이 한다고 하는 것은 APC에서는 이미 다 결론이 난 겁니다.

거기서 대한민국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 기마저 받아가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평창 유치를 위해서 지금 IOC 위원들을 상대로 득표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정해진 그런 정도의 대회도 할 능력이 안 되는 대한민국이 평창을 한다는 게,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꽤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정부도 중간에서 지금 나서서 열심히 풀고 있고요. 이 문제,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신학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하나만 여쭙보는데, 그러면 이 법안에 지금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라는 대회명만 추가했는데 예를 들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라든지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그쪽은 지금 다른 문제들 없이 다 특별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별도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그것은 되는데 여기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그쪽은 장애인대회는 따로 안 가고 그냥 별도의 대회만 가고 있는 것이지요. 아시아경기대회만……

○**위원장 황우여** 아시아경기대회하고 올림픽, 두 가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그렇지요. 거기에만 장애인대회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자세한 것은 소위에서 더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고, 법안의 구성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倫碩 委員**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유치는 언제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나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張倫碩 委員** 아니요, 거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아, 제가 할까요?

열리기는 2013년 1월 26일부터 열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지난 2010년……

○**張倫碩 委員** 2010년 언제쯤이었어요?

○**나경원 위원** 10월에 됐습니다.

○**張倫碩 委員** 아, 10월에 유치가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張倫碩 委員** 그러면 유치를 하시고 바로 이 법안을 발의를 해 주셨네요. 나는 유치는 오래 전에 됐는데 이 법안이 늦었지 않나, 혹시 걱정을 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그래 봐야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맞습니다.

○**張倫碩 委員** 이 지원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면 이 대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체계 있게 준비하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에서 준비까지 시간이 참 넉넉지 않은 기간입니다.

우리 나 위원님께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뛰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처리가 되면 큰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張倫碩 委員** 잘 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張倫碩 委員**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최되는 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 3개 국제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법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국제대회 통합지원법 비슷하게 되고 있는 셈이지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국제대회는 이 법을 통해서 다각 지원을 한다, 그런 구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용 의원이 개정안을 낸 장애인아시아대회도 이 통합지원법에 포섭을 해서 같이 운영하면 지원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겠단다, 뭐 이런 구상인 것 같아요. 다만 아시아경기대회위원회하고 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도 이 체계 속에 포섭을 해서 함께 운영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평창스페셜올림픽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왕의 지원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특별하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다르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일반법을 별도로 만들 때는 시설을 새로 짓는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 인허가 등의 그런 절차상의 소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일반법으로 하는데, 스페셜올림픽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준비기간이 굉장히 짧았는 데다가 저희들이 이제까지 했던 대회와는 다른 특별한 성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이 좀더 집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 나 위원님께서도……

○**張倫碩 委員** 아마 이게 독립된 제정법으로 내신 것 같네요.

○**나경원 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황우여** 예, 발의자시니까 자유롭게 발언하시지요.

○**나경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세계대회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법안으로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 바람직한 방향일 텐데요.

다른 대회하고는 조금 이것이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선수권대회라든지 아시아경기대회라든지 이러한 법들은 다 일종의 어떤 영리 스포츠의 형식이구요, 이 스페셜올림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 스포츠입니다.

또한 다른 대회는 엘리트 체육이라면 이것은 생활체육의 형식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정을 했고, 또 조금 더 신속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특별법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張倫碩 委員** 저도 그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기왕의 통합지원법은 유치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것에 초점이 있는데 지금 이 스페셜올림픽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치한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체력 향상 문제라든지 또 국민의 인식 제고라든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인식을 좀 업그레이드 하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지금 나경원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이 법은 이 법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제정을 하고 운영하는 게 옳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감사합니다.

○**張倫碩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법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한 법률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

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추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이운성 · 신성범 · 이종구 · 김재경 · 정태근 · 고홍길 · 홍사덕 · 손숙미 · 정옥임 · 이군현 · 김무성 · 강명순 · 윤진식 · 김성태 · 안형환 · 배은희 · 이진복 · 조원진 · 정해걸 · 강석호 · 김용태 · 조전혁 · 권성동 · 이두아 · 김성희 · 황진하 · 이종혁 · 이상권 · 조진형 · 이병석 · 박진 · 허천 · 강승규 · 현기환 · 진성호 · 이철우 · 김태환 · 백성운 · 조경태 · 김성동 · 서상기 · 김선동 · 유성엽 · 황우여 · 이해봉 의원 발의)

3월 17일 회부됨

○출석 위원(11인)

권성동	김영진	나경원	신학용
이명규	이정현	이종구	이한성
장윤석	주호영	황우여	

○청가 위원(1인)

임영호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윤석용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서전문위원	류	환	민
전문위원	석	영	환
입법심의관	박	명	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	선	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임	병	수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 대회 지원본부장	이	정	호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0. 12. 10 나경원 · 전해숙 · 손숙미 · 유정현 · 김호연 · 김성태 · 홍영표 · 임해규 · 황영철 · 장윤석 · 이영애 · 최경희 · 이인기 · 고홍길 · 권영진 의원 발의)

12월 15일 회부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 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

(2011. 3. 16 윤석용 · 김정권 · 나경원 · 이한성 · 주광덕 · 박은수 · 김혜성 · 권영진 · 장윤석 · 안홍준 · 이화수 · 박민식 · 홍일표 · 이명규 ·